

An Empirical Study on Individualization and Causal Structure of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Sang Don Kim⁺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national identity, patriotism, political orientation, socioeconomics,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gressive orientation and educ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tual exposure to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risks, while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actual risk exposure. Second,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actual risk exposure but negatively related with patriotism. Third, both the actual risk exposure and government's coping capac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isk possibility. Forth, Patriotism and educatio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via the actual risk exposure. Fifth, The actual risk exposure, patriotism, progressive orientation, education and income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isk possibility, via the government's coping capacity.

Key words: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risk, Individualization, causal structure

1. 서론

이 연구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성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복합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울리히 벡, 지그문트 바우만, 미셸 푸코 등이 제시한 위험의 개인화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이 지닌 개인화 특징을 규명한 후, 본인위협 발생 가능성, 정부대처능력을 최종내생변인과 매개

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실제위험노출을 매개외생변인으로 설정한다. 이들 내생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인들은 국민정체성, 애국심, 정치성향, 사회경제적 지위로 설정하여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인식의 양상과 인과적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한다.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을 분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우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북한의 위협(전면적 또는 국지전) 및 북핵 문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 및 인권침해, 주변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과 같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이 실제 어느 정도 노출

⁺ Corresponding author: Sang Don Kim, Tel. +82-2-3667-2639, e-mail. education17@hanmail.net

되었다고 인식하는지,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와 본인에게 닥칠 위협발생가능성 등을 어떻게 체감하고 인식하는지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보다 중요한 이유로 본 연구는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을 정치권력과잉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와 남북분단에 따른 국가안보위협으로 인해 초래된 위협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정치 및 대외관계위협은 인위재난 또는 자연재해 유형 위협들과 마찬가지로 울리히 벡(Beck)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에서의 위험사회와 푸코가 제시한 위협에 대한 개인화, 자율성, 자기책임 등의 이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사실이다. 이 두 거장의 논의를 수용하여 개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정치 및 대외관계위협이 개인들이 소유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들이 지닌 가치정향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성향, 애국심, 국민정체성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위협이 생산되고 인식되는지를 복합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국민정체성, 애국심, 정치적 성향 등의 가치정향과 교육, 직업, 소득을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협대상들-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을 내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위협의 개인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정치 및 대외관계위협 구성요소간의 인과적 영향 및 매개역할에 관한 분석이다. 이 연구의 매개 외생변인인 실제위험노출이 정부대처능력과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단위영향(직접영향) 및 매개효과(간접영향)를 분석하고, 매개내생변인인 정부대처능력이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단위영향(직접영향) 및 매개효과(간접영향)를 분석한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성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위협의 구성요소들을 위협의 개인화 관점에서 논의한 후 구체적인 연구가설 들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실증적 검증을 할 것이다.

II. 이론과 가설

1.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과 개인화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위험사회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사회 개념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산업사회와 비교하여 현대사회를 지칭하기 위해 개발한 학술적 개념이다(Beck, 1986; 1997).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근대의 사회문제들이 위협을 배태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결과로 초래된 위협이 더 이상 현대사회는 안전하지도 않고, 위협은 현대사회가 기대했던 통제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 실제화(Kim, 2006: 196)되었으며 합리적인 자기통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되었다(Jeong, 2009: 255).

지금까지의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력탄압과 국가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춘 위협을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이라 정의한다. 이 두 가지 위협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면, 정치권력탄압은 국가 내부에서 자행되는 국가권력이 초래하는 위협으로서 국민의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권력 탄압의 최근 주요사례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반대집회에 이르기까지 자유권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국가적 안보위협은 국가 차원에서 야기되는 안보위협을 의미한다. 전쟁을 비롯하여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처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가적 안보위협이 일상화되어왔고,

국가안보위협은 주요사태들은 전쟁 시, 준전시 상황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대치, 외부의 적에 의한 국가 지도부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안보위협은 우리나라에서는 분단체제위협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분단체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과 북한을 위시한 중국, 러시아의 구도로 남북 대 북방간의 세계열강들의 대결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유주의 지구화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열강들의 패권경쟁, 특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위협들의 생산과 중첩되어 있다(Park, 2015: 169). 예를 들면, 북핵 미사일의 무력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분단체제의 위협들은 위협들의 극복이 아니라 벡(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의 생산메커니즘으로 위협에 의한 위협의 생산의 악순환이 창출되고 있다.

이상의 정치 및 대외관계위협이 국민 개개인에게 체감하는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위협의 개인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위협의 개인화는 기든스와 벡의 성찰성, 푸코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바우만의 액체근대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 밝혀냈다. 본 연구는 이들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한국의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생산메커니즘을 도시하면 <Figure 1>과 같다. 통치성(Governmentality)¹⁾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태생적으로 배태(embedding)된 위협을 권력과 주체가 인지적으로 또는 성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은 행위자에게 전가와 위임과 같은 방식으로 주체를 조직한다. 주체는 스스로 위협을 생산·관리하면서 위협관리자로서의 자아를 통치한다. 로즈(Rose, 1996)는 통치성의 효과를 개인화라고 제시하였다. 개인화는 기든스와 벡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의 위험사회 맥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울리히 벡에 의하면, 위험사회의 특징은 무엇보다 안전의 세 주체인 국가(정치)·경제·과학이 위험관리의 제도적 실

패를 낳고 위협의 원천으로 여겨지면서, 개인들에게 믿을 것은 본인밖에 없는 비극적 개인화가 점차 가속화된다(Lim, 2014: 214-215). 개인들로서는 근대와의 자기대면이며 위협의 자기대면이라는 차원에서 성찰적 반성을 요구받게 되고, 그 새로운 정언명령은 “세계의 운명이 너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표현된다. 여기에 위험사회의 모순 내지 역설이 은폐되는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개인은 위협에 대해 개인화와 자율성, 그리고 자기책임이라는 의무 내지 운명으로 할당받게 된다(Lim, 2014: 214-215). 한편, 지그문트 바우만에게 있어 개인화란 법률상 개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비극에 책임을 질 사람이란 없으며, 개인의 실패는 오직 그 자신의 방만함과 태만에 원인이 있으며, 죽어라 노력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Bauman, 2010: 62-63)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의 외에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 “더 이상의 사회적 구제는 없다”와 마거릿 대처가 제시한 “사회 같은 것은 없다”의 주장 등은 사회권을 상대화 또는 의문시하면서 사회 대신 개인에게 전가 또는 개인을 통해 주체로 설정하는 형식이다.

푸코는 알튀세르가 주장한 권력이 개인을 주체로 만든다는(주체는 결코 자신의 욕구, 능력,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특정한 종류의 존재로 호명하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 주장을 그가 정밀한 형태로 제시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근대의 행정 권력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사람들의 몸과 행동에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다(Foucault, 2007; 2008; Lee, 2012: 48). 따라서 현대사회의 주체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원자화되어 있고 다면적이면서 때로는 공허한 사회구성물에 불과(Lloyd, 2005: 15-31; Lee, 2012: 46)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논의를 수용하고 위협에 대한 개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위협에 직면한 개인들은 권력과 환경에 의해서 구성되는 인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

1) 통치성 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주체형성 및 생산에 천착하면서 권력에 예속된 주체이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변형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 즉 행동방식의 통술(conduct of conduct)을 통한 권력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Seo, 2011: 162).

서 한국사회는 분단과 전쟁, 종속적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민주화, 압축적 근대화, 신자유주의 지구화 등의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과 권력에 의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면화되어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 또한 개인화 또는 개인에게 전가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의 개인화와 인과구조를 분석한다.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대상은 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 본인위험발생가능성으로 설정하고 이들 구성변인사이의 인과 관계는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하고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은 정부대처능력을 전제로 개인들은 위협을 증폭/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부대처능력은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실제위험노출이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대처능력에 매개되어 작동된다고 본 연구는 주목한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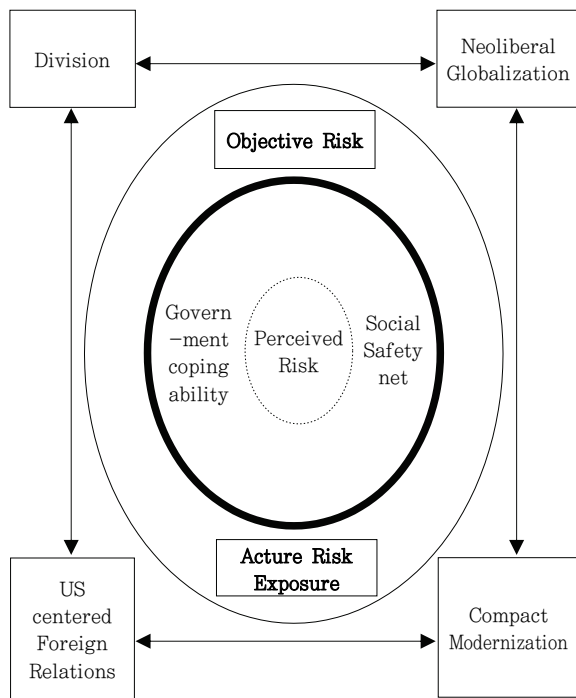


Figure 1. Cognitive mechanism of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2.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의 인과구조

울리히 벡(Beck, 1997)이 제시한 성찰적 근대성이란

근대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새롭게 발현하는 시민사회의 결속원리를 의미하며 정치적인 것이다. 그는 성찰적 근대성의 새로운 사회적 결속원리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보지 않았고 각종의 가치정향 또는 근본주의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리히 벡이 제시한 각종의 근본주의를 수용하면서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적 성향을 외생변인으로 설정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벡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교육, 직업, 소득)를 외생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정치 및 대외관계관련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인과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서구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종족집단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냈고,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통합의 목적으로 국민정체성이 창출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체성이 정치 및 대외관계의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의 하위개념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해 느끼고 대화하는 방식 또는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인식과 신념 그리고 감정이 다(Brubaker, 1992; Yoon, et. al., 2010: 53). 정리하면, 국민정체성은 특정국가의 국민이 느끼는 소속감 또는 감정과 태도를 의미한다. 스미스(Smith, 1991; 2000)는 국민정체성의 형성요건으로 “공통의 역사적 영토와 기억, 공통의 신화와 대중문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 및 의무, 공동경제 등을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정체성에 주목하면서 국민정체성이 정치 및 대외관계관련 위협대상들에 있어서 국민정체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한다.

둘째, 국민정체성과 함께 애국심도 정치 및 대외관계관련 위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담론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목한다. 애국심은 자신의 조국(국가)에 대한 신뢰, 사랑, 헌신의 가치정향을 의미하고, 애국

심은 하나의 정치사회적 신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지니는 덕목 내지는 윤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로부터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으로부터 냉전과 탈냉전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에 이어져 현재에 이르는 애국심에 대한 계보가 위치된다. 애국심은 위에서 논의한 국민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정치 및 대외관련 위험대상들에 있어서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의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인과적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한다.

셋째, 정치성향은 개인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이념적·이데올로기적 체계로서 보수, 진보, 중도의 가치정향으로 분류되며,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을 명확하게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기존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탈 물질주의적이고 집합적 의사표출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Kim,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보성향자들은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대상들에 매우 비판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직업, 소득을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 및 대외관계관련 위험들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거로 Barnshaw & Trainor(2007)는 위험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성된 조건하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회복 또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거나 뒤처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Ko, 2015). 이에 본 연구는 교육, 직업위세, 소득수준(사회경제적 지위)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위험 노출과 정부대처능력, 그리고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의 인과적 영향력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다.

3. 가설

위에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연구가설 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국민정체성을 중요시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있어서 실제로 많이 노출되

었고(a) 정부가 잘못대처하며(b),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클 것이다(c).

연구가설2: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에 있어서 실제로 많이 노출되었고(a) 정부가 잘못대처하며(b),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클 것이다(c).

연구가설3: 진보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노출되었고(a) 정부가 잘못대처하며(b),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클 것이다(c).

연구가설4: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노출되었고(a) 정부가 잘못대처하며(b), 그리고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클 것이다(c).

연구가설5: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에 있어서 실제위험노출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잘못대처하고(a)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이 클 것이다(b).

연구가설6: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에 있어서 정부가 잘못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닥쳐 올 위험이 클 것이다.

연구가설 7: 국민정체성(a), 애국심(b), 진보성향(c)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d)들은 정부대처 능력과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위험 노출에 매개되어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8: 실제위험노출이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대처능력에 매개되어 적극적일 것이다.

연구가설 1, 2, 3, 4는 이 연구가 설정한 외생변인들(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성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연구가설 5는 매개외생변인인 실제위험노출에 따른 정부대처능력과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연구가설 6은 매개내생변인인 정부대처능력에 따른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사용하고, 연구가설 7은 실제위험노출의 매개역할을 경

협적으로 검증한다면, 연구가설 8은 정부대처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에 수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이다. 이 조사의 설문문항 가운데 ‘국민정체성’, ‘애국심’, ‘정치 및 대외관계에 대한 정부대처능력’, ‘정치 및 대외관계에 대한 실제위험노출’, ‘정치 및 대외관계에 대한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을 활용하였다. KGSS 2013 자료의 조사 기간은 2013년 7월~8월에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층화표본추출법이다. 조사된 설문지의 유효사례 수는 1,294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0.3%로 여성 49.7%보다 0.3% 많고, 연령비율은 40대가 2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 22.5%, 30대 19.1%, 60세 이상 19.1%, 50대 16.7% 순서로 분포되었다. 직업별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 직업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사무준전문직

318명 24.6%로 가장 많았고 생산기능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주부(학생, 무직포함), 전문관리직 등의 순서로 분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는 전국인구비례에 따라 분포되었고 가장 많은 지역의 거주민은 수도권 541명 6.4%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변인들은 실제로 본 분석의 통제변인에 해당된다.

2. 분석변인

이 연구의 내생변인은 정치 및 대외위험에 대한 실제 위험정도,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이다. 이들 문항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은 각각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이다. 정치 및 대외 관계에 대한 실제 노출 정도는 “전혀 노출되지 않음”, “거의 노출되지 않음”, “별로 노출되지 않음”, “중립”, “다소 노출됨”, “상당히 노출됨”, “전적으로 노출됨” 순서로 1점에서 7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정치 및 대외 관계에 대한 정부대처능력은 “전적으로 잘 대처함”, “상당히 잘 대처함”, “다소 잘 대처함”, “중립”, “별로 잘못 대처함”, “거의 잘못 대처함”, “전혀 잘못 대처함” 순서로 1점에

Table 1. Socio-demographics

		N	%			N	%	
Gender	Male	651	50.3	Residence	Metropolitan area	541	41.8	
	Female	643	49.7		Gangwon	47	3.6	
Age	20s	291	22.5		Chungcheong	109	8.4	
	30s	247	19.1		Gyeongsang	405	31.3	
	40s	293	22.6		Jeolla	177	13.7	
	50s	216	16.7		Jeju	15	1.2	
	More than 60	247	19.1		Total	1294	100.0	
	Marital status	married	798		61.7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561
Bereavement		82	6.3		College		305	23.6
Divorce		57	4.4		University		349	27.1
Seperation		11	.9		Graduate shcool		75	5.8
Unmarried		343	26.5		Total		1290	100.0
Living together		3	.2					
Total		1294	100.0					
Occupation	production/mechical	331	25.6	Political orientation	More progressive	74	5.4%	
	sales/service	224	17.3		Less progressive	366	28.6%	
	clerical/semi-professional	318	24.6		Moderate	410	32.1%	
	mangerial/professional	167	12.9		Less conservative	369	28.9%	
	housewife(studernt, unemployed etc)	254	19.6		More conservative	60	4.7%	
	Total	1294	100.0		Total	1294	100.0	

Table 2. Explore factor analysis for risk with political and foreign relations

	Component		
	1	2	3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Acture risk exposure	-.028	-.123	-.865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Acture risk exposure	.049	.132	-.790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Acture risk exposure	.004	.036	-.870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_Acture risk exposure	.046	.121	-.784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Government coping ability	.012	.798	.022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Government coping ability	.001	.840	-.034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Government coping ability	-.010	.873	.024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_Government coping ability	.024	.776	-.092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Possibility of personal risk	.786	-.123	-.099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Possibility of personal risk	.867	.088	.045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Possibility of personal risk	.917	-.023	.025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_Possibility of personal risk	.856	.085	.012
Cronbach'a	.883	.852	.876
Eigenvalue	4.201	3.871	4.208
Variant	46.960	14.714	11.299
KMO(sig)	.857(.000)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Kaiser Oblimin with Normalization.

서 7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정치 대외관계에 대한 본인 발생 가능성은 “전혀 높지 않음”, “거의 높지 않음”, “별로 높지 않음”, “중립”, “다소 높음”, “상당히 높음”, “전적으로 높음” 순서로 1에서 7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이들 내생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는 표와 같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Kaiser-Meyer Olkin)값은 .857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구형성 검증통계치의 유의수준은 .000으로 3요인에 적합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46.960%를 설명하는 제1요인은 전체 설문문항 가운데 4개의 측정요인들이 수렴되는 것으로서 본인위험 발생가능성에 해당한다. 전체변량의 14.714%를 설명하는 제2요인은 전체문항 가운데 4개의 측정요인들이 수렴되는 것으로서 정부대처능력에 해당한다. 11.299%를 설명하는 제3요인은 전체문항 가운데 3개의 측정요인들이 수렴되는 것으로서 실제위험노출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본인위험발생가능성, 정부대처능력, 실제위험노출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a 계수로 평가한 결과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883, 정부대처능력은 .852, 실제위험노출정도는 .876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인위험발생가능성, 정부대처능력, 실제위험노출은 각기 별개의 구성체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은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협을 구성하는 측

정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이다.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에 포함된 요인들이 별개로 가정된 귀무모형, 모든 문항들이 정치적 위협이라는 단일차원으로 가정된 1요인, 두 가지 별개 차원으로 가정된 2요인모형, 세 가지 차원의 구성개념들로 제약을 가해진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귀무모형과 1요인모형, 2요인모형들의 경우보다 3요인모형은 χ^2 수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모형부합지수가 현격히 향상되었다. 이로써 3요인모형에 잠재된 변인들(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이 각기 별개의 구성체됨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외생변인은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이다.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등 여덟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국민정체성의 항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다소 중요”, “매우 중요” 순서로 1점에서 4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애국심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은 “한국 내 강한 애국심은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높여준다”, “한국 내 강한 애국심은 한국이 단결하기 위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competing models of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Null Model	1-Factor Model	2-Factor Model			3-Factor Model+
			M2_1 (expo+govern VS person)	M2_2 (expo VS govern+person)	M2_3 (expo+person VS govern)	
χ^2	16849,142 (p<.001)	4988,824 (p<.001)	2380,276 (p<.001)	2745,208 (p<.001)	2682,822 (p<.001)	1086,412 (p<.001)
DF	66	54	53	53	53	51
GFI	-	.608	.724	.688	.694	.877
AGFI	-	.433	.594	.544	.550	.811
NFI	-	.764	.859	.837	.841	.940
CFI	-	.766	.861	.840	.843	.943
IFI	-	.766	.861	.840	.843	.943

- 1) Goodness of Fit Index
- 2)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3) Normed Fit Index
- 4) Comparative Fit Index
- 5) Incremental Fit Index

Table 4. Explore factor analysis for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Component	
	1	2
Born in Korea	.847	-.135
Having Korean nationality	.802	-.036
Living most of life in Korea	.817	-.177
Can speak in Korean	.749	.025
Following Confucian teaching	.545	.097
Respecting Korean political systems and laws	.495	.160
Feeling Korean	.523	.207
Having a Korean ancestor	.647	.123
Increases Korea's position in the world	.036	.844
Korea is needed for unity	.034	.857
Cronbach's α	.843	.725
Eigenvalue	4,188	2,333
Variation	43,498	11,592
KMO(sig)	.863(.000)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Kaiser Oblimin with Normalization

해서 필요하다” 등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성된 애국심항목은 “매우 반대”, “다소 반대”,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다소 동의”, “매우 동의” 순서로 1점에서 5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Table 4>는 외생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이다.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Kaiser-Meyer Olkin)값은 .863으로 적절한 수준이며 Bartlett구형성 검증통계의 유의수준은 .000으로 2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량의 43.498%를 설명하는 제1요인은 전체문항 가운데 여덟 개의 측정요인들이 수렴하는 것으로서 국민정체성에 해당한다. 전체변량의 11.592%를 설명하는 제2요인은 전체문항 가운데 2개의 측정요인들이 수렴하는 것으로

서 애국심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한 결과 .843, .72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이 각기 별개구성체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Table 5>는 외생변인들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이다. 국민정체성과 외생변인들을 측정 변인들에 포함되는 요인들이 별개로 가정된 귀무모형이나 모든 문항들이 단일차원으로 가정된 1요인모형, 두 가지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제약을 가해서 이루어진 2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검증결과, 2요인모형의 경우가 χ^2 수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부합 지수가 현격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2요

인모형에 잠재된 외생변인들(국민정체성, 애국심)이 각기 별개의 구성체들임을 보여준다.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competing models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Null Model	1-Factor Model	2-Factor Model
χ^2	8306.787 ($p < .001$)	753.006 ($p < .001$)	453.057 ($p < .001$)
DF	45	35	34
GFI	-	.894	.933
AGFI	-	.833	.892
NFI	-	.909	.946
CFI	-	.912	.950
IFI	-	.913	.950

이 연구의 통제변인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하층 하, 하층상, 중층하, 중층상, 상층하, 상층상 순서로 1에서 6점으로 분석에 사용한다. 정치성향은 더미변수로서 중도·보수성향은 0, 진보성향은 1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로그소득으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한다. 직업은 전문관리직은 1, 그 외 직업은 0으로 더미변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육은 수학년수에 근거하여 0점에서 23점으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은 자연연령으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성별은 남성더미로 분석하였으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1, 그 외 거주지를 0으로 더미변수로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국민정체성, 애국심,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실

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공변량구조분석(SEM)등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분석하기 위해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도하는데, 이 분석에서는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측정모델이 변인간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구조모델은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을 최종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정부대처능력과 실제위험노출을 각각 매개내생 및 매개외생변인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등 여타 외생변인들의 인과적 단위영향을 추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IV. 분석결과

1. 평균차이검증

1)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실제위험노출

정치성향과 세대별 실제위험노출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진보, 중도 보수 모두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가 실제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치성향별로 상호 대비시켜 비교해보면, 보수성향이 진보와 중도 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반면에,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와 중도보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Table 6. Mean deviation about actual risk exposure by political orientation and age group

	Political Orientation				Age Group					
	Progressive (440)	Moderate (409)	Conservative (428)	F	Under29	30s	40s	50s	More than 60	F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Acture risk exposure	4.80	4.79	4.86	.436	4.76	4.83	4.91	4.71	4.84	1.028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Acture risk exposure	4.57	4.34	4.21	10.201***	4.38	4.47	4.68	4.20	4.05	11.400***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Acture risk exposure	4.56	4.29	4.36	5.685**	4.33	4.41	4.70	4.36	4.17	6.731***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_Acture risk exposure	4.68	4.41	4.26	12.007***	4.46	4.49	4.74	4.30	4.17	7.583***
Total	4.65	4.46	4.42	5.831**	4.35	4.60	4.67	4.35	4.01	15.923***

$p < .05$, $p < .01$, $p < .001$

침해가 많이 노출되었고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가 더 심하며,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게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치성향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이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가 많이 노출되었고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가 더 심하며,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게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의견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의 정부대처능력

한편, 정치성향과 세대별 실제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정부대처능력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비교하면, 진보, 중도 보수 모두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치성향별로 상호 대비시켜 살펴보면,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와 중도보다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침해,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 네 가지 모두 잘못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 정치성향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이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4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 네 가지 모두 잘못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의 본인발생가능성

정치성향과 세대별 정치적 위협의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보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반면에, 중도와 보수는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였다. 정치성향별로 상호 대비시켜 살펴보면,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와 중도보다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정치성향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가 본인

Table 7. Mean deviation about government coping ability by political orientation and age group

	Political Orientation				Age Group					
	Progressive (439)	Moderate (409)	Conservative (429)	F	Under29	30s	40s	50s	More than 60	F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Acture risk exposure	4.48	4.45	4.11	8.300***	4.22	4.55	4.65	4.15	4.08	7.863***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Acture risk exposure	4.50	4.42	4.14	9.999***	4.29	4.54	4.67	4.17	4.01	12.805***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Acture risk exposure	4.45	4.40	4.05	12.143***	4.26	4.58	4.57	4.20	3.81	15.714***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_Acture risk exposure_	4.73	4.61	4.34	11.036***	4.60	4.74	4.78	4.47	4.15	10.762***
Total	4.54	4.47	4.16	14.939***	4.35	4.60	4.67	4.25	4.01	15.923***

p<.05, p<.01, p<.001

Table 8. Mean deviation about possibility of personal risk by political orientation and generation

	Political Orientation				Age Group					
	Progressive (439)	Moderate (409)	Conservative (429)	F	Under29	30s	40s	50s	More than 60	F
North Korea's Treat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_Acture risk exposure	3.97	3.96	4.08	.891	3.90	4.10	4.04	4.01	4.01	.786
Infringement of human right and freedom by the State_Acture risk exposure	3.93	3.74	3.63	6.472**	3.83	3.87	3.94	3.78	3.40	7.378***
Suppression by surrounding great powers_Acture risk exposure	3.73	3.68	3.55	2.325	3.59	3.70	3.81	3.74	3.43	3.783**
Democracy Crisis by Power and Capital Acture risk exposure	4.04	3.84	3.71	7.380**	3.93	3.92	4.06	3.84	3.51	6.959***
Total	3.92	3.80	3.74	2.843	3.81	3.90	3.96	3.84	3.59	4.340**

p<.05, p<.01, p<.001

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반면에, 30대와 50대 이상은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시하였다. 40대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견제, 권력과 자본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 등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세대별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모델분석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성향, 국민정체성, 애국심, 정치 및 대외관계관련 위험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Appendix〉 참조). 이 모형에 자료를 맞춘 결과 얻어진 모형부합지수들은 $\chi^2=1800.286(df=335)$, $GFI=.898$, $AGFI=.859$, $NFI=.934$, $CFI=.946$, $IFI=.947$, $RMSEA=.0642$ 로 나타났다.

측정모형분석에 근거하여 LISREL 측정모형의 추정 결과는 〈Appendix〉 참조와 같다,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부대처, 위협노출, 진보더미, 교육, 소득, 수도권더미는 정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되는 반면에 국민정체성과 연령은 부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들 간의 관계는 정부가 잘못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 실제위험노출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 진보성향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수도권거주자를 전제로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있어서 본인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반면에, 국민정체성이 높은 사람과 연령이 많은 사람들을 전제 본인 발생가능성이 적음을 나타냈다.

정부대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위협노출, 진보더미,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정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되는 반면에 국민정체성, 애국심, 연령, 남성더미는 부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들 간의 관계는 실제위험이 많이 노출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람, 진보성향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남성을 전제로 정부가 잘못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반면에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이 높은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을 전제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위험노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진보더미, 교육수준, 소득수준, 전문관리직더미는 정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되는 반면에 연령은 부의 연관관계로 불가분의 현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들 변인간의 관계는 진보성향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전문 관리직을 전제로 위험이 많이 노출된다고 평가한 반면에, 연령이 많은 사람을 전제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구조모델분석

정치 및 대외 관계관련 위험과 외생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는 구조모형추정을 통해 규명한다. 구조모형추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모형 찾기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론적 개연성과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과 정치 및 대외관계위험 간의 경로들을 기본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수정지수를 통해 나머지경로들 가운데 이론적, 경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인과 경로들을 하나씩 자유모수로 개방시켜가면서 최종모형을 추정하였다.²⁾

구조모형의 추정결과, 기본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χ^2 수치(2644.969, $p < .001$), GFI=.857, AGFI=.814, NFI=.903, CFI=.916, IFI=.916, RMSEA=.0778로 나타난. 반면에 최종모형의 모형부합지수는 χ^2 수치가 1808.880으로 .001수준에서 유의미하며 기본모형보다 모형부합치(GFI=.898, AGFI=.863, NFI=.933, CFI=.914, IFI=.947, RMSEA=.0630)가 향상되었으며 설명력 또한 높게 형성되었다(기본모형의 R^2 =.014, .040, .021; 최종모형의 R^2 =.046, .375,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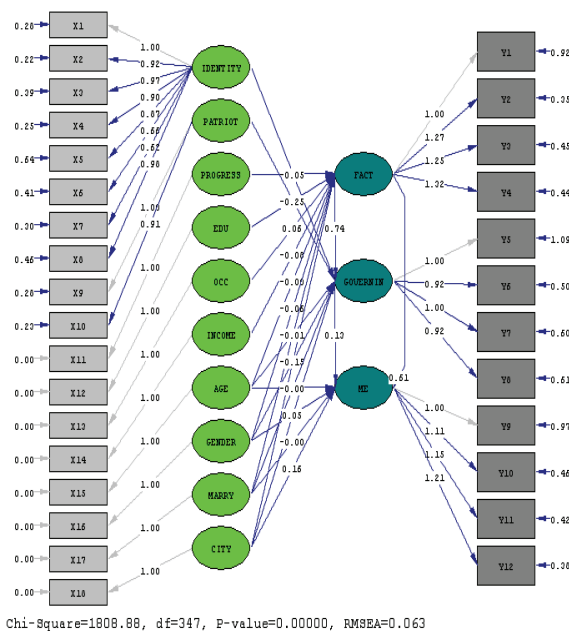


Figure 2. Structure model

모형 찾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조모형을 추정 한 결과(Table 9)), 첫째, 실제위험노출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진보성향과 교육년수는 정의 인과관계로 로그소득은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 진보성향자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교육, 직업, 소득을 대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실제위험노출이 심각할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은 교육년수만이 수용되었고 전문 관리직 소득수준은 수용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대처능력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실제위험노출은 정의 인과관계, 애국심, 연령, 남성터미는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나 실제위험노출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부대처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한 반면에, 애국심이 높은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정부대처가 잘못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실제위험노출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을 수용한 반면에,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이 높은 사람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 모두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반대의 결과로 검증되었음을 밝혀둔다. 셋째, 본인위험발생 가능성의 인과적 요인을 살펴보면, 정부대처능력과 실제위험노출, 수도권터미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부대처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 실제위험노출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 수도권 거주자들은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위험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들은 수용하게 된 반면에, 국민정체성, 애

2) 수정지수에 대해 Joreskog & Sorbom(1989)은 수정지수의 값 3.84~5.0 이상 또는 Fassinger(1987)는 보수적기준인 10.0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그 고정모수를 자유모수로 추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Table 9. LISREL estimates for causal factor of risk with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Acture risk exposure	Government coping ability	Possibility of personal risk
Mediator endogenous variable			
Government coping ability			.149***
Mediator exogenous variable			
Acture risk exposure		.564***	.526***
Exogenous variable			
National indentity	-	-.028	-
Patriotism	-	-.132**	-
Progressive	.106***	-	-
Years of schooling	.170***	-	-
Professional-Mangers	.025	-	-
Ln(income)	-.085*	-	-
Control variable			
Age	-.047	-.093**	-.044
Male	-.038	-.068**	.025
Married	.049	.046	.000
Metropolitan area	-.034	.009	.082***
R ²	.046	.375	.403
x ² (df)	1808,880(347) p<.001		
Model Index	GFI=.898, AGFI=.863 NFI=.933, CFI=.946 IFI=.947, RMSEA=.0630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ones and significance tests are for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p<.05(one-tailed test), **p<.01(one-tailed test), ***p<.001(one-tailed test)

국심,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은 수용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들이 지닌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그리고 본인들이 소유한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실제위험노출과 정부대처역량이 매우 중요한 변인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개별적 단위 영향들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최종내생변인 ‘본인위험발생가능성’과 매개내생변인 ‘정부대처능력’에 대한 경로분석결과(〈Table 10〉)를 추정한다. 정부대처능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에 대한 절대적 크기순서로 살펴보면, 실제위험노출(.564), 애국심(-.132), 연령(-.119), 교육년수(.096), 진보성향(.060), 로그소득(-.048)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제위험노출과 정부대처능력변인을 연결하는 매개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위험노출의 전체적인 영향은 직접효과로 구성되며 그 효과는 유의미하다. 둘째 애국심은 직접영향만 유의미하였고 전체의 100%가 직접영향으로만 구성된 데 비해, 진보성향과 교육년수는 간접영향으로 구성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며 전체의 100%가 간접영향으로만 구성되었다. 연령과 남성더미는 직접영향은 유의미하나 간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써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이 정부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위험노출에 매개되어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을 수용되지 않은 반면에 진보성향과 교육년수는 실제위험노출에 매개될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을 수용하게 되었다.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경로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대처능력과 본인위험발생가능성간의 매개변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위험발생가능성의 전체영향은 직접영향만으로 구성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실제위험노출은 직접영향과 간접영향모두 유의미하였고, 전체영향의 86.2%가 직접영향이고 11.8%가 간접영향으로 구성된다. 셋째, 애국심, 진보성향, 교육년수, 소득수준 모두 간접영향만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남성더미는 간접영향만 구성되었다면, 수도권더미는 직접영향만 유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실제위험노출은 정부대처능력에 매개되어 본인위험

Table 10. LISREL estimate results of path analysis

	Government coping ability			Possibility of personal risk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Total
Mediator endogenous variable						
Government coping ability	-	-	-	.149***		.149***
Mediator exogenous variable						
Acture risk exposure	.564***		.564***	.526***	.084***	.610***
Exogenous variable						
National indentity	-.028	-	-.028	-	-.004	-.004
Patriotism	-.132**	-	-.132**	-	-.020**	-.020**
Progressive	-	.060***	.060***	-	.065***	.065***
Years of schooling	-	.096***	.096***	-	.104***	.104***
Professional-Mangers	-	.014	.014	-	.015	.015
Ln(income)	-	-.048*	-.048*	-	-.052*	-.052*
Control variable						
Age	-.093**	-.026	-.119**	-.044	-.042	-.086*
Male	-.068**	-.021	-.090**	.025	-.033*	-.008
Married	.046	.028	.073*	.000	.037	.037
Metropolitan area	.009	-.019	-.010	.082***	-.019	.063*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ones and significance tests are for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Total=Direct+Indirect
 *p<.05(one-tailed test), **p<.01(one-tailed test), ***p<.001(on-tailed test)

발생가능성에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연구가설은 수용되었고, 진보성향과 교육년수 또한 정부 대처능력에 매개될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은 수용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민정체성과 애국심은 정부대처에 매개될 것이라고 제시한 연구가설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정부대처에 매개되어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부의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반대방향의 결과로 검증되었음을 밝힌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진보성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에 대한 기술통계, 판별수렴타당도(EFA와 CFA), 측정모형으로 추정 한 상관관계 및 구조모형으로 추정한 인과관계의 차이, 매개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결과의 요약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의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실제위험노출과 정부대처능력은 본 조사 척도의 중간 값(4)보다 큰 수치로서 실제위험이 많이 노출되었고 정부는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형성된

반면에 본인위험 발생가능성은 중간 값보다 적은 수치로 본인에게 닥칠 위험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 및 대외 관계위험에 있어서 국민들의 학습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와 정부불신에 따른 정치기사의 가십 칼럼으로 전략 또는 축소 등으로 기인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정치성향과 세대별 정치 및 대외관계 위협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의 위협 및 북핵문제에 있어서 정치 성향과 세대별 차별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나타나 북한의 위협(국지전 및 전면전)과 북핵문제에 대한 실제 위험노출, 정부대처,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있어서는 이념적 편향성과 세대별 격차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권 및 자유 침해, 주변강대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견제, 민주주의 위기에 있어서는 진보성향자와 40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위험이 많이 노출되었고,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닥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이념적, 세대적 견해 차이가 명백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치대외관계 위협의 구성개념들(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간에는 판별집합타당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병행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대외관계 위험을 측정하는 변인들은 예측한 대로 3요인모형으로 판명됨으로써, 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 발생가능성 등은 각기 별개의 구성체들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셋째, 외생변인들(국민정체성, 애국심, 진보성향, 사회경제적 지위)과 내생변인들(실제위험노출, 정부대처능력, 본인위험발생가능성) 사이의 상관계수와 인과계수를 상호 대비시켜 살펴보면, 본인위험 발생가능성에 있어서는 정부대처능력과 실제위험노출의 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나타내 명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체성의 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였으나 인과관계의 경우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가현적(spurious)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밝혀냈다. 진보성향과 학력 그리고 소득의 효과도 가현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전문 관리직과 애국심의 효과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Barnshawdhk & Trainor (2007)가 제시한 위험불평등과 무관한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정부대처능력에 있어서는 실제위험노출의 효과가 상관계수와 인과계수 모두 명시적인 정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낸 반면에, 애국심의 효과는 부의 명시적 효과로 나타나 애국심이 높은 사람들은 정부가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반면에 국민정체성과 진보성향은 유의미에서 무의미로 전환되는 가현적 효과로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의 효과는 상관계수와 인과계수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핵심적인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실제위험 노출에 있어서는 국민 정체성과 애국심의 효과는 유의미에서 무의미로 전환되는 가현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진보성향과 교육년수의 효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로 나타나 명시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치 및 대외 관계 위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실제위험노출의 매개역할을 평가하면, 실제위험노출의 정부대처능력에 강력한 단위영향이 상대적으로 여타변인들보다 단위영향(52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진보성향, 교육년수, 소득수준 변인들이 매개되어진 간접영향도 유의미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였다. 이는 실제위험노출이 정부대처능력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설정되어야 할 계량적·이론적 근거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실제위험노출의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단위영향($\beta=.149$)로 애국심, 진보성향, 교육년수, 로그소득변인이 매개되어진 간접영향도 유의미하게 형성되었고, 특히 실제위험노출이 본인위험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과적 영향은 정부대처능력에 매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대처능력이 개인들에게 다칠 위험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3)자료로 국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들을 정교화하는 이론적 작업과 정치 및 대외관계 관련 위험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의 분석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

References

- Barnshaw, J. and J. Trainer. 2007. Race, Class, and Capital Amidst Hurricane Katrina Diaspora. In Brunsmma, D., D. Overfelt, and J. Picou(eds.). *The Sociology of Katrin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Beck, Ulrich. 1997. *Risk Society-Toward New Modernity*. Trans by Hong, Sung Tae. Saemulgul.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rubaker, R. 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Fashingner, R. E. 1987.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ling Psychology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 58(1): 33-149.
- Foucault, Michel.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 Foucault, Michel.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79*. Trans by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 Jeong, Tae Seok. 2009. Reading about the Symptom of Social Structural Change in th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U.S. Beef Import – The Solidarity of Anxiety, Risk Society and the Politics of Market. *Economy and Society*. 81: 255.
- Joreskog, Karl G and Sorbom Dag.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 Chicago: SPSS Inc.
- Kim, Sang Don. 2011. The Impact of Inequality Cognition, Political Orientation, Party Support on Political Protest : With a Focus on Disaffection against State Affairs and Trust in National Institutions. *OUGHTOPIA*. 26(1): 141-171.
- Kim, Youg Wook. 2006. Risk Society and Risk Communication: Reflexivity on Risk and the Need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ies*. 2(2): 196.
- Ko, Dong Hyun. 2015. Hurricane Katrina as Unnatural Disaster: Government Failure and Inequality of Risk. *Korea Social Policy Review*. 22(1): 83-119.
- Lee, Mun Soo. 2012. Neoliberal Administrative Reform as a New Governmentality : A Critical Study on ‘Entrepreneur’ Bureaucrats Espoused. *Study of Korea Administration*. 21(4): 46.
- Lim, Mi Won. 2014. Eine Einleitende Untersuchung uber die Risikogesellschaftstheorie von Ulrich Beck. *Journal of Law*. 31(1): 214-215.
- Lloyd, Moya. 2005. *Beyond Identity Politics: Feminism, Power and Politics*. London: Sage Publications. 15-31.
- Park, Young Kyun. 2015. Disaster Times, Risk Production due to Oblivion and Risk of the Disaster. *The Radical Review*. 66: 4-18.
- Seo, Dong Jin. 2011. Innovation,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and Management Foucault’s Governmentality Analysis and Critical Inquiry of Neoliberalism. *Economy and Society*. 89: 71-104.
- Smith, A. 1991. *National Identity*. Penguin Books, London.
- Smith, A. 2000. *The Nation in History: Historiographical Debates about Ethnicity and Nationalism*. Hanover Univ. Press of New England.
- Yoon, In Jin, Yong Ho Song, Sang Don Kim, and Ju Yong Song. 2010. Koreans’ Perception about Multicultural Society and Migrant Workers. *Korea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53.
- Zygmunt Bauman. 2000. *Liquid Modernity*. Trans by Lee Il Soo. Book Publishing: Gang.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동현. 2015. 사회적 재난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정부실패와 위험불평등. *한국사회정책*. 22(1): 83-119.
- 김상돈. 2011. 불평등인식, 정치성향, 정당지지가 정치향의에 미치는 영향. *OUGHTOPIA*. 26(1): 141-171.
- 김영욱. 2006. 위험사회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이론*. 2(2): 196.
- 바우만. 2000.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도서출판 강.
- 박영균. 2015. 재난시대, 재난의 망각과 위험에 의한 위험생산. *진보평론*. 66: 4-18.
- 백(U. Beck). 1997.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옮김. 새물결.
- 서동진. 2011. 혁신, 자율, 민주화...그리고 경영: 신자유주의 비판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 사회*. 89: 71-104.
- 윤인진, 송영호, 김상돈, 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학술정보*. 53.
- 이문수. 2012. 통치성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 *한국행정연구*. 21(4): 46.
- 임미원. 2014. 백의 위험사회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법학논총*. 31(1): 214-215.
- 정태석. 2009.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경제와 사회*. 81: 255.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개인화와 인과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국민정체성과 애국심, 정치성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복합적·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분석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실제노출은 진보성향과 교육년수는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소득은 부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정부대처능력은 실제위험노출은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애국심은 부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의 본인위험발생 가능성은 정부대처능력과 실제위험노출이 강한 정의 인과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보성향, 교육, 소득은 실제위험노출에 매개되어 정부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실제위험노출, 애국심, 진보성향, 교육, 소득이 정부대처역량에 매개되어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가능성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주제어 : 정치 및 대외관계, 위험, 개인화, 인과구조

Profiles **Sang Don Kim** : He is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He is a instructor of the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d political attitude and action, social capital, comparative research(education17@hanmail.net).

Appendix. LISREL estimation result about correlation

	Person	Government	Exposure	Identity	Patriotism	Progressive	Edu	Professional	Lincome	Age	Male	Married	Metro
Person	1,000												
Government	.458***	1,000											
Exposure	.613***	.576***	1,000										
Identity	-.110***	-.156***	-.044	1,000									
Patriotism	-.036	-.157***	.022	.553***	1,000								
Progressive	.083**	.093**	.117***	-.053	-.045	1,000							
Edu	.173***	.144***	.163***	-.216**	-.133***	.105***	1,000						
Professional	.052	.028	.076*	-.018	-.069*	.032	.325***	1,000					
Lincome	.064*	.081**	.041	-.156***	-.063*	.076**	.524***	.190***	1,000				
Age	-.119***	-.162***	-.087**	.370***	.210***	-.072**	-.513***	.010	-.406***	1,000			
Male	.011	-.075*	-.009	.010	.030	.017	.162***	.037	.016	-.067*	1,000		
Married	.005	.024	.043	.128***	.135***	-.009	.095**	.157***	.182***	.309***	-.066*	1,000	
Metro	.075*	.017	-.021	-.109***	-.107**	.068*	.069*	-.062*	.045	-.043	-.016	-.071*	1,000

GFI=.898, AGFI=.859, NFI=.934, CFI=.946

IFI=.947, RMSEA=.0642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ones and significance tests are for th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p<.05(one-tailed test), **p<.01(one-tailed test), ***p<.001(one-tailed test)